

2018년 여름 뉴저지 목회자 세미나

주제: 주일강단을 회복하라-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

주관: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이재철목사)

후원: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 리바이벌네트워크,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장소: 뉴저지 영광교회 (정광희목사) 42 Court St. Hackensack NJ 07601

일시: 2018년 8월 14일 오전 10:00-12:30

들어가면서

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는다. 인간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는다.
2. 저도 예외가 아니다. 총신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후 세계초대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상호 연결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초대교회사를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알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되었고, 사도행전 연구는 나의 시각을 놀랍게 바꾸어 주었다.
3. 교회사와 성경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최초의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그로부터 30년 동안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그려 준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이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교회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교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사도행전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 구제를 두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툰 이야기,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로 극심한 다툼을 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술취한 것으로 조롱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신앙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준다. 교회사적 안목은 성경의 메시지를 더 현장감

있고, 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교회는 청중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5.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 교회사이다. 때문에 교회를 알면 알수록 성경의 메시지를 더 현장감 있고, 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교회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6. 교회가 주는 유익은 너무도 많다. 롤 모델들을 수 없이 만난다는 사실이다.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교회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만난다. 그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때로는 강한 도전을 받고, 때로는 깊은 실망감에 사로 잡힐 때가 많다.

사례: 주기철 조지 매켄 그래함 리

I. 교회는 성경과 교리와 오늘의 현장을 통시적으로 연결시켜 준다.

1.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록은 종말을 이야기 한다. 성경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役事, works)를 기록한 역사(歷史, history)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이 역사 속에 오신 존재이시다. 이것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과 역사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4. 사복음서가 아버지의 파송을 받고 역사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계시고 역사 속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역사와 초역사를 연결시켜 주신 성자 하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기술한 것이다. 실패의 연속이었던 부족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5.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교회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가정에는 족보가 있다. 교회의 역사를 들려주고 이해하는 것은 마치 한 가정에 뿌리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한 것이다.

II.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다.

1.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교회사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신다.
2. 모세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반복하였다.
3. 하나님은 카이로스만 아니라 클로노스의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일깨우셨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
4.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고백한다. 교리와 역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교리를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역사관으로 끝을 맺는다. 역사의 기원과 과정과 심판이 되시는 분.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시공의 역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구심점도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모든 역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6. 바울의 이런 역사관이 잘 드러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에게서 보내주셨다는 고백이다.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역사관을 피력한다.
7. 교리-역사관-삶이라는 도식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교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윤리적 삶, 교리적 삶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8.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역사 속에 태동되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의 실패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이야기, 교회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바로 교회사이다. 구원 받은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잘 아는 것은 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있는 존재인 인간은 역사 앞에서 있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9. 놀랍게도 성경은 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너무도 탁월한 역사의 안목을 가진 인간 저자들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

명하게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도 그 때문이다. 누가는 신약의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너무도 탁월한 역사가였다. 역사가로서 누가를 가장 잘 드러낸 신약학자가 하워드 마샬이다. 그는 전도자로서의 누가, 역사가로서 누가, 신학자로서 누가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10. 누가는 좁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의식하며 천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고, 갈릴 리가 호수라는 언급도 처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천하라는 말을 일곱 번이나 반복하였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드러낸 것이다. 하나님은 최초의 교회사 사도행전을 국수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드러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누가만큼 훌륭하게 드러낸 인물도 드물다.

III. 교회사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된 이야기이다.

1. 누가는 최초의 교회사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을 너무도 잘 연결시켜준다. 사도행전이 미완성인 것은 세상에서의 성령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난 2천 동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인물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2. 지난 교회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갔는가를 주목하는 것은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워줄 것이다.

3. 교회사는 사도행전의 후속 편이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렇다면 교회사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 중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시켜 오셨기 때문이다.

4.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신약교회가 태동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였을 때 역동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부으심은 구약에도 없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도 없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나타났던 역사였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으심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구분해 주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칼빈의 지적대로 실추된 교회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그래서 요엘서에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부으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셨다. 그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공동체가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들이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베드로는 이것을 성령의 부으심(행2:33)이라고 설명하였다.

5.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는 사마리아, 가이사라, 에베소에서도 나타났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독특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가이사라, 에베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6.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의 역사는 교회사에서 나타나 교회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교회사도 이를 선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는가가 중요하다.

1) 프랭크 비어즈리(Frank G. Beardsley)-“부흥운동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였다.”(History of American Revivals)

2) 로이드 존스-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다.

IV. 교회사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연속

1. 지난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다.

2.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에서 계속되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필요할 경우에 나타났다, 회심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며,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교회에 임했다.

3. 어거스틴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 패트릭의 아일랜드 선교이야기, 중세 몰라즈운동, 성 프란시스, 도미니크,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루터 칼빈 나스의 이야기, 종교개혁을 통해 위대한 서양혁명의 이야기, 청교도, 경건주의, 스페너의 경건의 열망, 진젠돌프 모라비안, 프랑케의 할레공동체,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운동, 요한 웨슬리, 2차 대각성운동, 찰스 피니, 무디의 회심, 생키의 찬양, 1857년 정오기도부흥, 스펠건의 회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이야기, 웨일즈 대부흥, 인도부흥, 평양대부흥운동, 중국부흥,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회심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확장의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난 교회사를 통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회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이야기들이 중단되지 않았다.

4.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교회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사명을 정확히 다시 매순간 확인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으로

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파송 받은 존재인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사모해야 하고,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합주회(성령의 부으심을 위한 기도)**

1747년, An Humble Attempt

“인용”

에드워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을 그대로 그 자신과 그 시대 교회에 주신 약속으로 믿고 평생 성령의 부으심을 기도 가운데 간구하고, 강단에서 전파하였다.

5.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도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역사였다. 그냥 입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였다.

6. 이와 같은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사에는 부흥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역사가 연속되었다.

V. 부흥의 주역들은 모두 회심을 경험했다. 교회사에는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1. 성경과 교회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들은 모두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을 놀랍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2. 이것은 교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4. 프랑케, 청교도, 휘필드 웨슬리, 에드워즈, 피니, 무디, 스펀전, 빌리 그래함, 언더우드, 아펜젤러, 길선주, 하디, 주기철 모두가 뚜렷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3. 기도, 말씀, 회개(3r/recognize/repent/return) 성령충만의 역사는 사도행전과 교회사에서 연속되었다.

VI. 목회자는 교회사 안목을 통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전달 하는 자이다.

1. 주일강단을 회복하려면 교회사를 잘 알아야 한다. 필자는 교회사를 알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신학생들에게 자주 도전을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알면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정말 유익할 것이다.' 교회사에 대한 안목은 청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해준다.

2. 목회자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변하는 세상을 읽어야 한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는 세상을 읽어가는 안목이 참 많이 부족하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변하는 세상을 읽어가는 안목은 탁월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 못한다. 이 부류는 각자 강점도 있지만 참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최대의 약점이자 문제점이다.

3.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변하는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변하는 세상을 읽어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길은 교회사이다. 교회사는 변하지 않는 말씀과 변하는 세상을 읽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4. 탁월한 설교자들 가운데 역사적 안목을 갖춘 분들이 많다.

1) 패커, 쉐퍼, 로이드존스, 존 스타트, 조나단 에드워즈, 빌리 그래함은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아직 한국에서는 로이드 존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사를 연결시키는 설교자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옥한흠, 이동원은 교회사적 안목이 상당히 반명되는 메시지를 전한다. 옥한흠은 2003년 은퇴한 후 필립샤프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시리즈로 된 교회사 책을 그는 완독했다. 3) 패커는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을 동시에 가르친다. 그래서 그의 책은 역사신학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감동을 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은 대표적이다. 1987년 가을 필자는 제임스 패커의 '칭교도' 과목을 들었다. 정말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그 강의를 듣는 동안 참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설교처럼 들려지는 강의'를 들은 것이다. 강의가 설교처럼 들려진 것이다.

5. 성경과 교회사의 만남은 놀라운 시너지를 가져다 준다. 마치 에드워즈를 탁월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라고 표현한다면 과장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데이빗 웰스도 마찬가지이다.

VII. 교회사를 설교하라.

1. 교회사를 설교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

- 1) 로이드 존스, 부흥
- 2) 팩커, 성령을 아는 지식
- 3) F. F. 브루스, 복음은 불꽃처럼

2. 강단에서 설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목회자 자신이 교회사적 안목을 키워야 한다. 강단에서 설교해야 할 교회사의 부흥스토리를 먼저 목회자가 읽고 배우고 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흥의 스토리를 통해 목회자가 진정한 역사의식을 함양하여 영성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강단에서 살아 있는 생생한 교회사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 회심의 역사를 들려줘야 한다.

3. 교회사에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살아 있는 생생한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

- 1) 루터-/성경과 기도/1917년 등 스토리
- 2) 종교개혁의 이야기/즈빙글리와 루터 양과 염소의 이야기
- 3) 블레어와 매코믹 여사
- 4) 무디와 게일의 만남
- 5) 주기철, 손양원
- 6) 칼빈의 연합운동/언더우드의 연합운동/한국선교 결심
- 7)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만남
- 8) 즈빙글리와 루터
- 9) 그레함 리-

4. 성경에서 적절한 예화를 찾는다. 교회사를 텍스트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사만큼 훌륭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없다. 본문에서 시작해서 교회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는다/

5. 교회사를 강단에서 실제로 접목하는 간단한 실제 워십-엠펙 5: 14-21

제목: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14)

1. 세월을 아끼라(14)

2.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17)

3. 성령충만을 받으라(18)

결론

맺는 말

1. 성경과 교회가 만나면 주일 강단이 회복된다.
2. 하나님은 기계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3.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사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4. 사도행전을 알면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사를 잘 알면 구약 시대, 신약시대, 교회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하도록 눈을 열어준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신약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최초의 교회사 사도행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5. 교회사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주일강단에 말씀과 접목시켜 전파하는 것은 주일강단을 살리는 원동력이다.
6.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사에 대한 안목, 특별히 부흥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

세계부흥운동사

서론

제 I 부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이전까지

1장 부흥의 역사적, 신학적, 어원적 이해 19

1. 부흥의 성경적, 어원적 의미 ^^
2. 현대인들의 부흥 이해 ^^
3. 세계부흥운동 역사 개관
4. 부흥에 대한 세 가지 이해 ^^

2장 신약의 부흥과 오순절 성령강림 53

1. 세례요한과 영적각성
2.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 지도자
3. 오순절 성령강림과 초대교회 부흥

3장 초대교회 영적각성운동 73

- 1. 초대교회 놀라운 복음의 확장
- 2. 초대교회 영적각성의 선구자들
- 3. 성 어거스틴과 성 패트릭의 회심

4장 중세시대 영적각성운동

- 1. 암흑시대 영적각성의 선구자들
- 2. 도미니크와 프란시스 부흥 ^^
- 3.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과 영적각성운동

제 II 부 종교개혁 이후 부흥운동

5장 종교개혁과 영적각성운동 119

- 1. 마틴 루터와 비텐베르그 부흥
- 2. 존 칼빈과 제네바 부흥
- 3.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부흥

6장 영미(英美) 청교도운동과 경건주의운동 168

- 1. 영미 청교도운동과 영적각성
- 2. 개혁파 경건주의운동과 영적각성
- 3. 루터파 경건주의운동과 영적각성
- 4. 아우구스트 프랑케와 할레 공동체 부흥
- 5.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 부흥

제 III 부 ^^18세기 영미부흥운동과 1차 대각성운동

7장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 ^^ . . . 247

- 1. 조지 휘필드와 칼빈주의 부흥운동
- 2. 18세기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부흥운동
- 3.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 부흥운동
- 4. 18세기 스코틀랜드 부흥(1742-1744)
- 5. 요한 웨슬리를 통한 아일랜드 부흥(1747)

8장 제 1차 대각성운동 배경: 솔로몬 스토다드부터 길버트 테넌트까지 290

1. 미국 청교도 신앙의 쇠퇴
2. 미국 청교도 영적각성의 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
3. 프릴링하이젠과 화란개혁과 경건주의
4. 윌리엄 테넌트와 길버트 테넌트

9장 조나단 에드워즈와 제 1차 대각성운동 330

1. 탁월한 영성과 지성의 소유자 조나단 에드워즈
2. 노담프턴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첫 파장 ^^
3. 노담프턴에 임한 성령의 역사, 그 두 번째 파장
4.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신학과 노담프턴 부흥의 결과

10장 뉴잉글랜드 전역에 임한 놀라운 각성운동(1738-1742) 330

1. 뉴저지와 펜실바니아에서 일어난 각성운동
2. 조지 휘필드와 길버트 테넌트의 보스턴 순회전도 ^^
3. 메사추세츠 여러 지역에 임한 각성운동
4.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각성운동
5. 버지니아와 남부 영적각성운동
6. 제 1차 대각성운동, 그 공헌과 평가

11장 미국 인디언 영적각성운동(1743-1746) 387

1. 인디언 영혼을 품은 선교 개척자
2. 인디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부으심
3. 계속되는 인디언 각성운동
4. 브레이너드의 거룩한 소망, 성령의 부으심

제 IV 부 제 2차 대각성운동과 평신도부흥운동

12장 미국 제 2차 대각성운동 387

1. 19세기 전반 급속한 영적·사상적 변천
2. 19세기 미국 캠퍼스 부흥과 해외선교운동
3. 19세기 전반 미 남부 영적각성운동
4. 19세기 전반 동부지방 각성운동
5. 19세기 스코틀랜드 부흥

13장 찰스 피니 부흥과 미국 제 2차 대각성운동 467

- 1. 찰스 피니의 변호사 견습과 회심
- 2. 찰스 피니를 통해 타오른 부흥의 불길
- 3. 찰스 피니의 부흥관, 그 예찬과 비판

14장 정오기도부흥부터 스필전 부흥까지 1857-1875 467

- 1. 미국 연합기도회 부흥운동(1857-1859)
- 2. 아일랜드 부흥운동
- 3. 1859년 웨일즈 부흥운동
- 4. 1859년 스코틀랜드 부흥
- 5. 설교자의 황태자, 찰스 스필전과 영국부흥
- 6. 19세기 평신도 기도부흥운동 평가

15장 디 엘 무디 부흥과 동시대 부흥·선교운동 1875-1900 467

- 1. 디 엘 무디 부흥운동, 그 발흥 확산 결과
- 2. 학생자원운동과 근대해외선교
- 3. 성결운동과 케직운동
- 4. 무디와 동시대 신앙운동과 지도자들

제 V 부 20세기 초 글로벌 부흥운동

@16장 글로벌 영적각성을 위한 기도와 순회전도자 541

- 1. 현대주의와 산업화의 도전
- 2. 세계부흥운동을 위한 목마른 기도
- 3. 20세기 초 순회전도자들과 순회전도활동

17장 웨일즈 대부흥운동 1904-1905 582

- 1.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발흥 배경
- 2. 이반 로버츠의 회심과 부흥운동 지도자 부상
- 3.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발흥
- 4.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특징과 영향
- 5. 웨일즈 대부흥운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

18장 20세기 초 인도부흥운동 1905-1906 644

- 1. 인도 동북부 카시 족 부흥운동
- 2. 인도 라마바이의 목티 부흥운동@
- 3.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를 통한 부흥의 불길
- 4. 인도 남부와 동남부로 확산되는 부흥의 불길

@19장 1905년 북미부흥과 1906년 아주사가 부흥운동

- 1. 1905년 미국 부흥운동
- 2. 아주사가 부흥운동 발흥과 확산
- 3.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오순절운동

20장 한국의 오순절, 평양대부흥운동 644

- 1. 원산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의 기원
- 2. 평양대부흥운동의 전야
- 3.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격과 영향

21장 기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타오른 부흥의 불길 644

- 1. 만주로 번진 회개의 불길
- 2. 중국 여러 곳으로 확산되는 부흥의 불길 ^ ^
- 3. 기타 국가에서 일어난 부흥

제 VI 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부흥운동

22장@20세기 전반 지구촌 지역 부흥 1910-1950 749

- 1. 미국 빌리선데이 부흥, 그 예찬과 비판
- 2. 20세기 호주와 뉴질랜드 부흥운동
- 3. 20세기 아프리카 부흥운동
- 4. 20세기 전반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부흥운동
- 5. 소비에트 공화국(러시아) 부흥
- 6. 20세기 전반 아시아 부흥

@23장 빌리 그래함과 20세기 후반 미국 부흥운동 847

- 1. 빌리 그래함과 근대 복음주의 부흥
- 2. 1960-70년대 캘리포니아 지저스 운동
- 3. 미국 교파적 은사주의 혹은 신 오순절운동
- 4.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텔레비전 전도자들

@24장 20세기 후반 부흥운동과 은사주의 지역부흥 1950-2000

1. 20세기 후반 호주와 뉴질랜드 부흥
2. 로이드 존스의 근대 칼빈주의 부흥
3. 미국과 캐나다 급진적 유사성령운동과 부흥
4. 1971년 캐나다 사스카툰 부흥
5. 20세기 후반 아시아 부흥

@25장 20세기 캠퍼스 부흥운동 887

1. 20세기 초 아프리카와 아시아 캠퍼스 부흥
2. 휘튼대학 부흥운동
3. 컬럼비아 성경학교와 동부 나사렛 대학 부흥
4. 벤엘 대학 부흥
5. 애즈베리 대학 부흥
6. 캠퍼스 부흥: 신학적 역사적 평가

맺는 말 919